

KAPA NEWS & FOCUS

2007년 회원대상 집합연수 실시

최근 우리 업계는 공적평가의 업무영역 확대 및 사회성·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전문자격자로서의 자질향



상과 감정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감정평가사인 회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15시간의 연수(집합연수, 사이버 연수, 세미나, 공청회 참가 등 포함)를 이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수규정을 제134차 정기이사회(2007. 5. 29)를 통해 개정하였으며, 직업윤리 및 사회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이 반드시 출석·이수하도록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였다. 의무연수 도입(15시간)으로 인한 협회 자체의 집합연수는 2007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 동안 전체회원 2,510명을 대상으로 하여 4개권역(광주, 부산, 대구, 서울)으로 나누어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회원 상호간 친목교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각 권역마다 연수위원장 및 연수위원들의 사회를 시작으로 “처음 하는 집합연수에 적극 호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연수가 유익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김상윤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건설교통부 이충재 팀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김동천 과장, 회원이신 김원보, 노용호, 류윤상 평가사와 외부강사이신 엄길청 교수(경기대)와 김경신 이사(한양증권) 등 다양한 강의 주제로 기존의 연수와의 차별을 시도함으로써 회원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임대사례조사 · 검수 및 접수

건설교통부와 협회 및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지난 7월 23일(월)부터 7월 26일(목)까지 4일간에 걸쳐 협



회 3층 연수실에서 2007년 하반기 임대료 및 투자수익률 조사·평가 보고서 검수 및 접수」를 조사·평가 담당자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검수 및 접수는 총 4개의 검수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설교통부의 총괄 하에 각 검수반 당 임대사례조사·연구위원회 위원 1인 그리고 한국부동산연구원 1인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검수 시 임대사례조사·평가보고서는 전산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전송 후 제출하고 검색내역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논리적 오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수방법으로는 검색내역서 보고서의 종별수량 확인 및 작성상의 하자 등에 중점을 두어 검수를 진행하였다.

검수절차는 조사·평가담당자들이 사전에 검수 및 접수 일정에 맞추어 조사표상의 자료를 전산입력한 후, 조사·평가보고서와 검색내역서 내용을 사전 검토 및 수정 뒤 검수 당일 수정된 검색내역서 및 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2007년도 하반기 임대사례 검수결과 총 17개의 법인과 144개의 감정평가사 사무소 244명의 감정평가사 전원이 참석하여 임대사례조사·평가보고서를 접수하였다.

향후 한국부동산연구원은 검수 시 접수된 임대사례 조사·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하위시장(상권)별로 임대료 및 투자수익률(종합수익률)을 추계하여 2007년 11월경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계 발전을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1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최정호 토지정책팀장, 김동수 부동산평가팀장, 권혁진 분양가제도개선팀장을 초청하여 감정평가업계 발전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김상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근래 들어 전문자격자로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도덕성, 전문성

KAPA NEWS & FOCUS

한국부동산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식 및 제4대 원장 취임식

지난 6월 5일 한국감정원 원장 및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손선규 원장의 제4대 원장 취임식 및 개원 6주년 기념식이 한국감정평가협회 3층 연수



을 의심받고 있는 이 때에 신뢰제고를 위한 과감한 인식전환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부실평가로 인하여 국고손실이 없어야하며 전문자격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전문자격자로 거듭나기를 당부”하였다.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지난 7월 1일 서울대학교에서 실시된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 제1차 시험 응시자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7월 27일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와 협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exam.kapanet.or.kr>) 및 전화자동응답안내(060-700-1924)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이번 1차시험은 출원자 5,877명 중 4,740명(응시율 80.6%)이 응시하여 1,279명이 합격하였으며, 제2차시험은 8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1차 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2,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윤 회장, 경향신문(뉴스메이커)과의 인터뷰

지난 7월 4일 김상윤 회장은 경향신문(뉴스메이커 733호)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감정평가업계는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평가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성이 강한 업무이므로 신뢰제고를 위한 지정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가격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지만 최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적정가격을 찾아내야하며 자정노력과 업무능력의 향상에 힘을 기울여 전문성을 더욱 키워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감정평가기법의 고도화」라는 주제로 개원 6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이동과 박사(경일감정평가법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는 정수연 교수(제주대)의 ‘서울지역 아파트 층별 효용비율’, 제2주제는 김태훈 책임연구원(한국부동산연구원)의 ‘토양오염 부동산의 감정평가’, 제3주제로 양승철 책임연구원(한국부동산연구원)의 ‘복합용도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이 발표되었다. ☾